

세상에 죽고 싶은 아이는 없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리포트 선별 치료에서 보편적 예방으로

“그냥 상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왔어요.” 상담교사가 민재(가명)를 처음 만난 건 3월 초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상담실을 찾아왔다.

민재는 밝은 얼굴로 이것저것 물었다. 교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재의 기록을 살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했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줄곧 ‘정상군’에 속해 있었다. “언제든 또 와.”

그 후로도 민재는 두어 번 더 상담실을 찾았다. 교사와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를 나눴을 뿐 별다른 징후나 기색은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민재가 ‘위험한’ 아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죽음

3월 마지막 주말, 민재는 집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의젓하고 친구도 많고 학교생활도 잘하던 아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날 민재는 집을 나와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다행히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이를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상담교사가 이유를 물어도 민재는 “저 진짜 괜찮아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긴 설득 끝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재의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이 이혼한 뒤 민재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생계 때문에 아버지는 늘 바빴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마음에 병이 생겼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숨겨왔다.

“그동안 참 외롭고 힘들었겠다.”

상담교사의 한마디에 민재는 눈물을 쏟았다.

“선생님, 사실 저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10~19세) 자살자 수는 370명이었다. 하루에 한 명씩 자살로 아이들을 잃은 셈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다.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는 아이보다 자살로 죽는 아이가 더 많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자살이 성인보다 예측하기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알아채는



이미지: shutterstock

것부터 쉽지 않다. 사춘기 시기와 겹쳐 있어서 발달 단계상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내면의 문제 때문인지 본인도 모른다. 가족이나 선생님도 분간하기 힘들다.

마음의 어려움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두통, 복통, 메스꺼움 등 신체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학교 보건실에 지나치게 자주 가는 아이들을 따로 불러 대화해보면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담교사의 설명이다.

우지향 서울 선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아

이들이 가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발달단계를 따라 나선형으로 움직인다”면서 “해소된 것처럼 보여도 특정 스트레스나 계기로 갑자기 증폭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놓친 아이들

교육부는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되면 위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결돼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검사를 피해 간다. 신혜정 흥대사대부고 전문상담교사는 “자가 진단 형태의 검사라서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다”면서 “낙인이 찍힐까 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교육부의 ‘학생 자살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3년 자살한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는 정상군에 속해 있었다. 또 사망한 학생의 73%는 자살 직전까지 특별한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없었고 출결 상태도 양호했다.

내면의 불안과 우울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이른바 ‘침묵군’ 아이들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다. 검사에서도 정상군으로 분류되고 평소에도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아 발견이 어렵다. 자살 시도나 사망 사건이 발생해야 바깥으로 드러난다.

죽은 사람이 남긴 단서를 통해 자살의 이유를 밝히는 것을 ‘심리부검’이라고 한다. ‘모범생’ 주호(가명)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심리부검이 진행됐다. 고등학교 2학년 주호는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만큼 성적이 뛰어났다. 학급 회장을 맡을 정도로 성격도 활발했다. 예의 바르고 세심해서 선생님들도 주호를 무척 아꼈다.

유족과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심리부검을 한 결과 주호에게는 영재 소리를 듣는 형제가 있었다. 일반고에 다니는 모범생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 비교당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다.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은 “위기 아동을 선별해 치료하는 시스템에서는 놓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면서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죽고 싶은 아이는 없다

규영(가명)이는 중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자살 시도를 했다. 오랜 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렸지만,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다. ‘말해봤자 해결은 안 되고 부모님만 힘들어지겠지. 죽어야겠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3면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리포트’로 계속

USAID 폐지 수순... 현장 NGO 절반, 3개월 내 문 닫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해외 원조 독립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에 두고 직원을 약 15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의 해외원조를 90일간 중단하면서 시작된 혼란은 USAID 폐지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USAID를 일부 기능을 국무부로 재배치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 기능은 중단하는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AID 폐쇄 움직임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지난 2월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각지에서 국제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1만 명이 넘는 USAID 직원이 업무를 중단하면서다. 지난달 3일 미 정부는 워싱턴DC의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개인 짐을 찾아 떠나고 있다. [사진 shutterstock]

USAID 본부 직원들에게 ‘출근 금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폐쇄했다. 현재 USAID 홈페이지(www.usaid.gov)는 폐쇄된 상태다.

USAID는 연간 예산 428억 달러(약 62조

2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협력 기구다. 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포함한 UN 기구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제기구들은 조직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유엔 고위급조정위원회(CEB)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미국 지원금 비중이 20%를 넘는 국제기구는 10곳에 이른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연간 예산은 2억2300만 달러(약 3200억원)인데, 이 중 미국 지원금은 9900만 달러(약 1440억원)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47억700만 달러 가운데 19억1800만 달러로 41%, 국제이주기구(IOM)는 35억2800만 달러 중 14억400만 달러로 40%, 세계식량계획(WFP)은 91억2400만 달러 중 31억900만 달러로 34% 규모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7면 ‘USAID 폐지 후폭풍’으로 계속

Inside

‘제1회 민트포럼(MinT Forum)’ 23일 개최	C2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건강 문해력’	C3
청년 장애인 IT 전문가로	C4
카카오와 대학의 사회혁신 실험	C5
SOS위고 봉사단이 만든 기적	C6
30년 기부하고 20년 봉사한 최병길 후원자	C7
더버터 스페셜: 넥스트CSR포럼 사회공헌의 ‘넥스트 레벨’을 모색하다	C8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마음과 마음을 잇는 'K-마인드' 시대가 온다



이장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로, 화상회의로,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관계망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은 전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마음'은 오가지 않는다. 마음이 연결돼야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얽혀야 공동체가 생긴다. '얽힘'이 없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마음의 고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에 모든 걸 걸었다. 성장도 중요하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의제가 없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마음이 상한 채로 경쟁에 내몰린 개인들은 탈진했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분열을 낳고 있다.

다시 '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저 정신건강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 차원이 아니다. 마음은 정책이 되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이 되어야 하며, 공동체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는 '마음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마음 체계를 'K-마인드'라고 부르고 싶다. K-마인드는 긍정심리학의 용어도 아니고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도 아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온 집단적 마음 체계, 그리고 앞으로 세

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정과 정신적 자산의 총합이다. 연결을 넘어 '얽힘'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단군신화 속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이념에서 K-마인드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한국인은 유독 '함께 견디는 힘'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자세'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팬데믹도 그러했다. 우리는 연결을 넘어 마음이 얽힌 사회, 다시 말해 '따뜻한 연결'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entanglement)'은 두 입자가 서로의 상태를 공유해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즉각 반응하는 현상을 뜻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얽힘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반응하고, 돌보는 정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연결만으로는 고립을 해소할 수 없지만, 얽힘은 외로움을 줄인다. 그리고 그 얽힘은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마음의 전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 얽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사람들은 익명의 상대에게 진심을 남긴다. 아무 조건 없는 위로, 들어주려는 마음,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삶을 불드는 끈이 될 수 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음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정책은 거대하지만, 시작은 작아야 한다. K-팝이 전 세계의 귀를 사로잡았다면, K-마인드는 전 세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 연결을 넘어 얽힘으로, 경쟁을 넘어 공존으로, 성장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전환이 필요하다. 마음을 잇고,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존중하는 사회. K-마인드 시대가 온다. 마음을 다룰 줄 아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마음건강, 공감과 연대로 회복한다

'제1회 민트포럼' 23일 개최

'민트포럼: 마음을 연결하다' (4월 23일,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

시간	내용
Mint Opening 14:00-14:20	마음을 연결하는 'K-마인드' 시대가 온다 이장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기조강연 14:20-14:50	한국의 사회문제와 마음건강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석좌교수
1부 주제발표(1) 14:50-15:10	'이상한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이서현 작가 서늘한어름밤
1부 주제발표(2) 15:10-15:30	고립 청년들, 닫힌 문을 열다 박소현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
1부 주제발표(3) 15:30-15:50	생명을 지키는 모임 '게이트 키퍼' 김기리 방송인
2부 주제발표(1) 16:00-16:20	동양철학에서 찾은 마음치방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2부 주제발표(2) 16:20-16:40	마음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는 법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부 주제발표(3) 16:40-17:00	마음의 구조신호, 연결로 응답하라 장동선 공금한뇌연구소 대표
3부 패널토론 17:00-17:40	마음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모데레이터 김시원 더버터 대표 패널 박재희 원장 윤대현 교수 장동선 대표 김정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협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한다. 모데레이터는 김시원 더버터 대표가 맡는다.

이번 포럼은 마음건강 관련 종사자와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시민

130명 규모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 페이지(bit.ly/mintforum)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민트포럼' 사무국(02-3789-7863)으로 하면 된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황신애의 기부상담소

유튜버에게 후원하는 것도 기부인가요?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Q 기부와 후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부인가요.

A 기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등을 내놓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후원은 '뒤에서 지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보다 '후원자'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데요. 이유는 아동 결연(sponsorship)과 같이 특정 대상을 지정해 꾸준히 도와주는 형태의 기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부자라는 말은 돕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고, 후원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내포된 말입니다.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Daddy Long Legs)에서 주인공 주디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후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후원은 기부보다 제공자의 책임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후원자는 '스폰서'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누군가의 뒤를 책임지고 봐준다'는 뉘앙스가 있죠. 지원을 해주면서 함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해요. 유튜버에 대한 후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기부를 권하는 모금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기고 모바일 결제가 수월해지면서 디지털 모금이 활성화됐어요. 이와 함께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광고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언뜻 보면 '공익 모금'인지 '사적인 후원 요청'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최근 기부품범법이 개정되면서 공익

요건을 갖추고 모금을 하는 경우 기부자들에게 충분한 모금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공익단체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모금을 합니다. 만약 모금정보를 잘 볼 수 없다면 법이 보장하는 공익 모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공익 기부금에는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유튜버 등의 사적 활동 돕는 후원은 공익적인 기부금과 구별되고 세법상 기부금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법에서 기부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하도록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할 자격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닐 겁니다. 기부는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는 사회 참여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작게라도 일상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기부입니다.

“당신의 기부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워크' 진행

비영리 공동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2025 파이워크(Pie Week)'가 올해도 진행된다.

파이워크는 솔루션저널리즘 미디어 더버터(The Butter)와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공동 캠페인으로, '한 조각씩 나눠 먹는 파이처럼 작은 기부를 통해 나눔의 달콤함과 따뜻함을 경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이워크는 누구나 일상기부(Everyday Giving)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자에게는 존중과 사회적 인정을, 모금단체에는 신뢰와 공공성을, 나아가 사회 전반에는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첫 캠페인에서는 "일 년에 한번은 기부를 생각하자"는 메시지 아래 12개 비영리단체가 연말 공동 모금에 참여해 기부의 의미를 새롭게 전달했다.

올해 파이워크는 연말 캠페인을 넘어 연중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50-사진)은 자신만의 철학과 스토리를 가진 국내 기부자 50인을 선정해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와 파이워크 온라인 플랫폼(pieweek.thebutter.org)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2040세대 젊은 고액기부자부터 수십 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유산기부를 약정한 기부자까지 다양한 사례를 조명하면서 기부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일상에서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게 독려한다.

연말에는 '파이워크'라는 이름으로 집중 모금 캠페인이 진행된다. 12월 한 달 동안 공동 슬로건을 내걸고 참여 단체들이 기획한 모금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예방이 필요하다

▶ 1면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리포트'에서 계속
투신한 아이는 온몸 뼈가 부서져 수술을 여섯 번이나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상담센터를 찾아온 규영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 번도 죽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그랬어요.”

3년째 규영이를 상담하고 있는 박상미 힐링캠퍼스 더곰곰 대표는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자해할 때 눈에 잘 띄는 곳에 합니다. 손등이나 목이 가장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나 좀 봐 달라’ ‘살려 달라’는 뜻으로 자해하는 거예요.”

해외 여러 국가들은 ‘사회정서교육’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국·영국·호주·프랑스 등에서는 사회정서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포함하거나 필수교과로 지정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도록 하고 있다.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스트레스



순위	사망원인	사망자수(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1위	자살	370(7.9)
2위	악성신생물(암)	105(2.2)
3위	운수사고(교통사고)	62(1.3)
4위	심장질환	19(0.4)
5위	가해(타살)	17(0.4)
6위	뇌혈관질환	16(0.3)
7위	익사	16(0.3)
8위	선천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15(0.3)
9위	폐렴	12(0.3)
10위	코로나19	7(0.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를 관리하는 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는 유니세프가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개발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한국 상황에 맞춰 보완한 뒤 2022년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만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도 7만5000명이 수업을 신청했다.

교육부도 지난해부터 사회정서교육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발표했다. ‘예방’ 위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사회정서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로의 관찰자가 되다

“선생님, 이 워크북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교사를 찾아왔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좀 더 잘 써보고 싶어서요.”

이날 흥대사대부고 3학년 창체 시간에는 유니세프의 마음건강 프로그램 ‘나를 찾는 마음여행’ 수업이 진행됐다.

신혜정 전문상담교사는 “대입 준비로 바쁜 고3 학생들이 편지 쓰기를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다”며 웃었다.

“학생들 각자 책(워크북)을 한 권씩 받았어요. 8차시에 걸쳐 나의 마음, 감정, 스트레스, 자존감, 관계 등에 대해 기록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마음 포트폴리오’ 만들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손으로 쓰는 걸 싫어하는데 이걸 재밌어하네요. 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서울 선사고등학교는 정규교과 시간에 사회정서교육을 진행한다. 영어 시간에는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 내용을 영문으로 발췌해 불안이란 무엇

인지, 자신의 불안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미술 시간에는 자화상 그리기를 한다. 타인이 보는 내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그려보며 간극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대화한다.

우지향 선사교 전문상담교사는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다”면서 “선생님들도 교과 수업할 때는 몰랐던 아이들의 표정을 발견했다며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니 서로가 ‘관찰자’가 돼 주는 게 중요해요. 표정, 행동, 징후를 살피고 어떤지 물어봐 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살 시도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민재는 주변의 관심 속에 차츰 회복됐다. “이제 숨기지 않고 마음을 말하면서 살 거예요.” 민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만신창이였던 규영이의 몸과 마음도 다시 살아났다.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청소년들을 돕는 ‘심리상담사’가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됐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너무 늦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회복한다.

‘마음건강 문해력’이 아이들을 살린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리포트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터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됐다. 유니세프는 2021년 ‘세계 아동 보고서’를 통해 아동의 마음건강 문제를 주요 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2년째 ‘자살’이다.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스트레스, 우울감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는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한 뒤 2022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옥에서 만난 조미진 사무총장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건강한 사회를 지속시키는 토대”라면서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보편적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개발국 아이들 지원사업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국내 아동들을 위한 마음건강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요.

“유니세프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의 태그라인인 ‘모든 어린이를 위해(for every child)’에는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되죠.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들의 마음건강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

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음건강 문제가 방치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살펴야 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극심한 경쟁 풍토와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이죠. 국내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참담한 현실이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유니세프 마음건강 프로젝트의 핵심은 ‘예방적 접근’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과 증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많은 아이가 마음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저희는 그 답을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인 ‘마음건강 문해력’에서 찾아왔어요.”

-마음건강 문해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 이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도와달라’고 말할 수만 있어도 훨씬 많은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건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아이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가보다 방법을 몰랐던 경우가 많다”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마음을 먼저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강 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사후 평가 결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문제 해결, 대인관계 기술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가정과 보호자가 아이의 마음건강을 위한 1차 예방주사, 즉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과 생각은 전염되기 때문에 부모의 행복한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보호자가 ‘마음건강 문해력’을 함께 키워야 아이를 더 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교육자료를 개발했어요.”

-올해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부와 협력해서 마음건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마음건강 문해력 교육을 정규교과에 편입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옹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3월 24일 서지영 의원실과 함께 ‘아동 마음건강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마음건강 통합 지원법(가칭)’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어요.”

-인상적인 발언들이 있었나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은 아동 마음건강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분절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학생 문제는 교육부, 치료는 보건복지부, 학교밖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역할이 분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니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미진 사무총장은 “현장 활동과 입법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음건강은 모든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지지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유니세프의 목표입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 장애인을 'IT 전문가'로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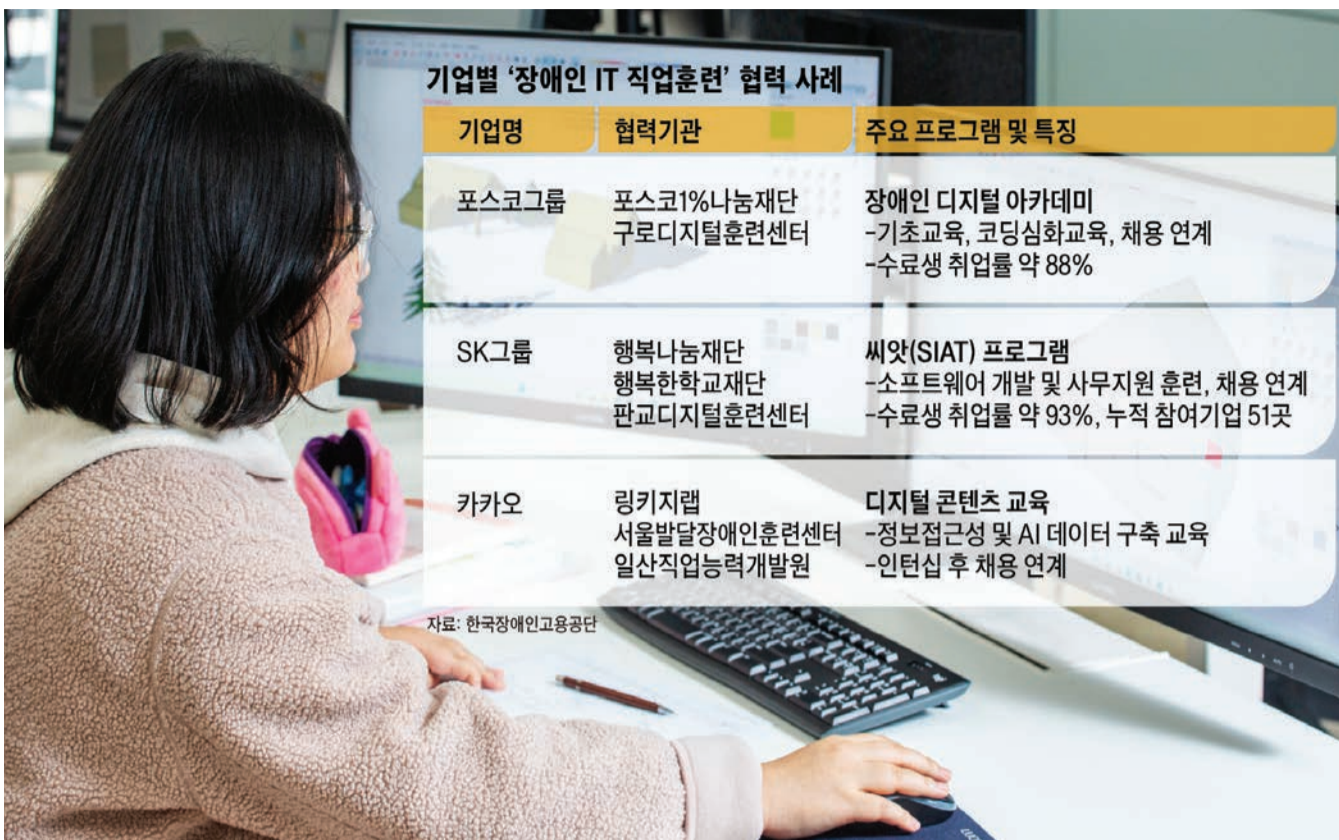
장애인고용의 해법 IT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 모니터 뒤편에 코드가 올라갔다. 이지수(27가명)씨의 손끝에서 복잡한 데이터는 깔끔한 그래픽 화면으로 바뀌었다. 이씨는 선천성 청각 장애인이다. 청력이 약하지만 눈과 손끝이 빠르다. 그는 지난해 판교디지털훈련센터의 '장애인 ICT 전문가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가 교육을 받았다. 대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톨로 분석하고, 모델링 작업을 통해 정보를 도출하고, 직관적인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배웠다.

장애인 고용이 'IT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과거 단순 업무에 머물렀던 장애인 고용이 최근 들어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직무로 확장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기업들과 함께 IT 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을 마련해 장애인 고용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키우는 기업들

SK그룹은 장애인 IT 인재 육성에 적극적이다. SK C&C를 비롯한 26개 기업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씨앗(SIAT: Smart IT Advanced Training)' 프로그램은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사무지원 등 IT 직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수료 후 참여 기업에 채용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생들은 문서 편집,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온라인 채널 운영 등의 실무를 배우고 SK행복나눔재단과 공단의 지원을 받아 IT 실무교육 뿐 아니라 심리재활, PR 스피치 훈련 등도 제공받았다. 지난해까지 훈련 수료생의 93%인 60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누적 51곳에 달한다. 박정하 행복나눔



재단 매니저는 “훈련생들이 일할 때 진짜 필요한 역량을 길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 과목과 커리큘럼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자인 링크지랩을 통해 IT 직무에 장애인 인력을 육성·채용하고 있다. 링크지랩은 시각장애인 헬스케어, 디지털 접근성 테스트, AI 학습데이터 구축 등 IT 활용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채용 전 인턴 과정을 통해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인재를 정규 채용하는 식이다. 링크지랩의 김지향씨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 김씨는 “직업훈련 당시 기업에서 실제 활용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며 “덕분에 현재 장애인과 노인, 정보소외계층 등도 I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정보 접근성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 올해도 기업 연계를 통해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장년 장애인을 선발해 28주간 온라인 기초교육(4주), 코딩 심화 프로젝트(20주), 채용 연계 과정(4주)을 지원하는 코딩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지금까지 총 41명이 과정을 마쳤고 이 중 36명이 KB국민은행·한국인터넷진흥원·메가존·포스코휴먼스·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취업했다. 수료생 취업률이 약 88%에 달할 정도로 고용 연계 효과가 뚜렷하다.

공단 산하의 지역 거점 디지털훈련센터들도 기업과 협력해 현장 맞춤형 IT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디지털훈련센터는 지난 2023년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면서 교육 직종의 약 60%를 IT 분야로 확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센터를 통해 102명의 장애인이 훈련을 수료했

고, 이 중 8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IT 직업훈련 받은 장애인, 취업률 80% 넘어 IT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7%, 고용률은 33.8%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IT 직군으로 기업 연계 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취업률은 80~90%에 이른다. 일반직군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특히 IT 직무교육을 이수한 장애인들은 수료 즉시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취업 연계를 이뤄진다. IT 역량 습득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열쇠라는 평가다.

고용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된다. 기업과 공단이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거쳐 채용된 장애인들은 사전 직무교육 덕분에 업무 적응이 빠르고, 기업도 지원 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장애인이 취업 후 12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50만원의 취업성공장려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훈련을 통해 얻은 정보기술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는 구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후 소득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I 시대에 맞는 IT 직무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장애인들은 실제 직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비장애인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글로벌 직업컨설팅 기업 랜드스타드의 '인재 부족의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55%가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 근로자의 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공단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2019년부터 전국에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서울 구로와 성남 판교 등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개소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13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중증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원과 민간협력 덕분에 장애인 IT 인재들이 배출되고, 장애인 고용률도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들의 평균 고용률은 3.17%로 10년 전 2.54%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적 뒷받침,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 기회”라며 “IT 직업훈련처럼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AI 시대,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장애인고용을 높인다



이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지난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국가 AI 인프라 구축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4년 동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파급력은 AI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AI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AI 시대의 도래는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템퍼스AI'는 AI 기반의 정밀 진단·치료 기술로 의료

산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예전에는 의사들이 수십 시간에 걸쳐 세웠던 치료 계획이 이제는 AI에 의해 단 몇 시간 만에 수립된다. 인간이 수십 시간을 들여 처리했던 일을 AI는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AI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AI 시대의 장애인 구직자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AI 자동화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AI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직업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은 AI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도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 과거 장애인이 주로 제조업의 단순 조립이나 보조 업무에 진출하였다면, 이제는 IT, 디자인, 원격 고객 상

담, 소프트웨어 테스트,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보다 전문적인 직무에서도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민관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한다면 디지털 기술 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장애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기업 맞춤형 훈련을 설계하는 맞춤형훈련센터(2개소), IT 수준별 교육과 IT 분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디지털훈련센터(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디지털훈련센터 17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형 장애인 공공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원'을 전국 6개 권역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경기도 동탄 소재)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올해 첫 훈련과정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AI 데이터 분석, 반도체 품질 분석, 3차원 정밀 측정, ERP 재무분석, 스마트 응용 계측, 디지털융합 사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기술 중심의 융·복합훈련을 제공하며, 장애인이 AI 시대의 주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장애인 인재의 실제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훈련 인프라 확충에 더해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매년 4월을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주역(周易)에 이런 말이 있다.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 어려운 상황(窮)에서는 변화(變)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通)하고, 통하면 오래간다(久)라는 뜻이다. 공단은 AI 시대의 도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변화를 통해 장애인 인재가 고용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AI 시대, 장애인 인재가 AI 시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뚝는 기술’ 만드는 대학생들…카카오와 대학의 사회혁신 실험

카카오임팩트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올 초 대학의 수강신청 시스템에 못 보던 강의가 하나 났다. 강의 제목은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IT 개발자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강의’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학생들은 생각에 잠겼다. 컴퓨터공학·심리학·디자인·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모였다.

지난 2023년 KAIST에서 처음 시작된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수업이 올해 1학기부터 연세대·한양대에도 개설됐다. 올 2학기에는 가천대와 KAIST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미래세대가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생애 전환적 경험’을 교육하는 교육 과정으로, 카카오임팩트와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은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사회혁신가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이언 펠로우’에 선발된 펠로우와 한 팀을 이루게 된다.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기술적 해결방안을 찾는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KAIST 전산학부 교수)은 “기술과 사회문제를 연결하는 사회혁신 교육이 여러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학교마다 학풍이



지난달 3일 열린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개강 워크숍에는 수강생을 포함해 브라이언 펠로우, 카카오 개발자 멘토 등이 참여했다. [사진 카카오임팩트]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화된 수업이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올해 4곳으로 확장 연세대는 이번 수업을 전체 학생이 듣는 교양 수업으로 열었다. 수강신청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연세대는 ‘수강신청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학생들에게 수강 학점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듣고 싶은 강의에 마일리지를 베푸는 구조다. 마일리지 가 높은 순서대로 수강생을 확정하기 때문에

인기 강의에는 마일리지 가 몰린다. 지도교수인 강연아 연세대 융합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처음 개설하는 수업이라 주목받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정원 45명에 80명 넘게 신청했다”며 “전공 수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번 수업을 듣기 위해 마일리지를 올린 학생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양 수업인 만큼 수업을 설계할 때 기술 개발보다 ‘문제정의’에 무게를 뒀다. 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개발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며 “브라이언 펠로우들이 다루는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술로 풀어볼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정의 능력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한양대는 조금 다른 전략을 택했다. 교양 과목이 아닌 사회혁신융합전공의 전공 수업으로 개설했다. 수강정원은 40명으로 설정하고 공대생 30명(75%), 비공대생 10명(25%) 비율로 구성했다. 특히 공과대학 전공자는 융합전자공학부·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정보시스템학과·데이터사이언스학부·산업공학과

등 IT 계열로 제한했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프로그래밍 개발 역량이 있는 학생들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회혁신융합전공 학생들이 팀을 꾸려 문제정의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경험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임팩트 생태계의 인재풀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학기에는 가천대에서 수업을 개설 예정이다. 가천대는 스타트업칼리지에서 3학점 교과목으로 기술 기반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경험을 통한 창업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수업에는 브라이언 펠로우 5명이 참여한다. 김경목 별파러거자 공동대표,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 김재원 리필리 대표,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평등 대표, 조현식 온기 대표 등이다. 구체적으로 리더 노동자와 이동약자의 안전, 학교밖청소년의 기회불평등, 플라스틱 폐기물과 종이팩 안전성,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마음건강과 우울감 해소 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수업의 교재가 된다. 강연아 교수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

치는 수업이 아니라 기술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수업”이라고 했다.

카카오임팩트, 캠퍼스 교육의 플랫폼 역할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의 ‘디랩(D-Lab)’, 스탠퍼드대의 ‘디스쿨(D.School)’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목적과 구조가 전혀 다르다. 디랩은 학부생·대학원생·석박사 등이 참여해 개발대상국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수업이다. 디스쿨은 ‘디자인씽킹’이라는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문제정의를 강조한다. 반면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 수업 안에 사회혁신가와 IT 개발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께 키우도록 설계됐다.

현직 개발자들이 멘토로 나서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수업에는 연세대와 한양대에 각각 개발자 8명이 멘토 역할을 한다. 한양대 멘토로 참여하는 정준 카카오 개발자는 “학교 다닐 때만해도 현직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정규수업으로 편성된 만큼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상 교수는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난 현장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팀을 이뤄 함께 솔루션을 고민하고, IT 개발자들이 기술자문을 맡고, 민간 재단에서 플랫폼 역할을 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말했다. 카카오임팩트가 민간 재단으로서 캠퍼스 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뚝는 기술’을 누구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과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의 실험장이 전국 곳곳의 캠퍼스에서 이뤄지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개설시기	2023년 가을학기	2025년 봄학기	2025년 봄학기	2025년 가을학기(예정)
개설전공	전산학부	특별정책교양	사회혁신융합전공	창업대학 스타트업칼리지
교과명	전산학특강 테크포임팩트	테크포임팩트 프로젝트	사회혁신캡스톤 PBL (카카오와 함께하는 테크포임팩트)	(미정)
지도교수	류석영 교수	강연아·송진영 교수	신현상·유호현·유재연 교수	김남주 교수
특징	수강신청서 접수 후 정원에 맞춰 수강생 선발하는 방식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교양 수업으로 설계	공학전공(75%)과 사회혁신융합전공(25%) 혼합 선발	실전 프로젝트 기반 사회문제 해결 과제를 창업으로 연계
자료: 카카오임팩트	카이스트	연세대	한양대	가천대

대학·기업·재단·사회혁신가 연결한 ‘컬렉티브임팩트’ 모델



신현상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장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임팩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온 전문지 스탠퍼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아티클은 2011년 크레이머와카니아가 기고한 ‘컬렉티브임팩트(Collective Impact)’였다.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와 3000회 이상의 학술지 인용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학계와 실무계 양쪽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이 아티클의 핵심은 ‘스마트한 파트너십’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여러 사람과 기관이 각자 보유한 지식과 전문성, 자원을 공유해 협업하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주체가

모여 협력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오히려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 상충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 분열로 인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많다.

컬렉티브임팩트는 공동의 어젠다, 공통의 성과 평가시스템, 시너지 창출 메커니즘, 중추조직, 오픈 커뮤니케이션 등 5요소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현재 카카오임팩트재단이 카카오(기업), 브라이언펠로우(사회혁신가), 그리고 한양대 등 4개 대학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이런 점에서 탁월한 컬렉티브임팩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공동의 어젠다 측면에서 테크포임팩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뚝는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재단과 ‘뚝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뚝는 사람들’ 즉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회혁신가들,

‘뚝는 기술’을 배우기 원하며 이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쓸 준비가 되어있는 대학생들, 바쁜 시간에도 탁월한 기술력을 공유할 카카오 개발자들을 연결한다.

둘째, 공통의 성과평가 시스템이다. 테크포임팩트는 사전조율과정을 통해 한 학기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 기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대신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 습득, 마인드셋 변화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한다. 이는 일견 대학에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혁신가 멘토들은 미래의 동료 또는 방학 동안 함께 할 인턴을 찾을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 개발자 멘토들은 의미 있는 사회공헌과 함께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기업정체성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및 발굴에 도움받을 수 있다. 재단은 ‘뚝

는 기술’을 가진 인력양성을 통해 임팩트 생태계의 중장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상호보완적 시너지 창출 메커니즘이다. 대학은 강의역량이 뛰어난 교수진, 학생모집과 수업운영을 도울 행정 스태프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는 개발역량이 뛰어난 개발자 멘토를 한 학기 동안 2회 투입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혁신가 멘토진은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내주고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전문성, 인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을 가이드해준다.

넷째, 중추조직(backbone organization)으로서 재단은 사회혁신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각자 가진 니즈와 목표,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연계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 및 운영을 담당

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오픈 커뮤니케이션이다.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 배려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테크포임팩트 참여 기관들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중간중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나서서 서로 돕고 있다.

2023년 KAIST에서 시작되어 2025년 1학기에 한양대와 연세대, 2학기에 KAIST와 가천대에서 진행될 테크포임팩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인사이트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5년 후에는 한국의 많은 대학, 그리고 10년 후에는 세계의 많은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뚝는 사람’과 ‘뚝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연결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임팩트 테크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위고’ 봉사단이 구한 사람들, ‘돕는 이웃’으로 돌아왔다

이랜드 ‘SOS위고 봉사단’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출신 아버지를 둔 A(20)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지난해 동생도 언니를 따라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했다. 두 자매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은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매의 삶은 당장 잠잘 곳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폭력을 일삼던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는 홀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새 가정을 꾸리면서 한국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자매의 삶이 바뀐 건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SOS위고(WEGO)’ 사업 덕분이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보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포천하랑센터의 박승호 센터장이 경기도 파주시에 살던 자매를 센터가 있는 포천시로 데려오기로 했다. 목돈이 필요했다. 센터에서 돕기에는 방 보증금과 기초생활비가 컸다. 그때 박 센터장은 재단에 연락했고 SOS위고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 센터장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평생을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지원사업은 없다”고 했다. 이들이 긴급신호를 보낸 다음 날 재단 담당자들이 마치 영화 속 영웅 처럼 현장을 찾았다. 불과 3일, 부모도 외면한 자매에게 삶의 터전이 마련된 기간이다.

박 센터장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이라도 서류를 만들고, 심사하는 동안 상황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매가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이랜드 사옥에서 ‘SOS위고 봉사단’ 2기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 이랜드복지재단]

한 것도 아이들 마음속에 ‘사회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사회에 보답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웃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긴급지원

이처럼 발 빠른 지원이 가능한 건 전국 2000여 사회복지단체와 교회 등을 연결하는 ‘위고 봉사단’ 덕분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내고, SOS위고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랜드의 SOS위고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해수로 13년째 지속하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공헌 사업이다.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3일 만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약 2만6000여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 봉사단은 긴급지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설은아 씨도 위고 봉사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동네에서 이른바 ‘정신병자’로 소문나 모두 피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SOS위고를 통해 치료받도록 도왔다. 이후 증세가 호전된 A씨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을 발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설씨는 지하철역에서 “3000원만!” 하며 구걸하던 노인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천했다. 현재는 노숙 생활을 청산하

고 설씨가 참여하는 지역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설씨는 “SOS위고 사업의 장점은 서류보다 사람을 보는 것”이라며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행정 절차를 밟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이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어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수해자 10명 중 9명이 자립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재단의 지원과 봉사단의 협력 구조가 시너지를 낸다고 판단해 서울, 경기에서 시작해 제주까지 포괄하는 전국 단위로 봉사단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의 목표는 ‘공동체로의 귀환’

SOS위고 사업의 중심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의 안전망 역할이다. 봉사단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면, 즉시 실사를 나가 현장의 필요를 확인한다. 둘째는 국내에서 가장 신속한 개입이다. 단돈 몇만원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3일 내 모든 지원을 완료한다. 셋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다. 지역사회 내 SOS위고 봉사단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취약계층에게 복지 골든타임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3일 내 지원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지원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게 SOS위고 사업의 취지다.

봉사단은 긴급사업을 지속하는 큰 동력이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선 지속적인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봉사단이 맡는다. SOS위고 봉사단원인 권현아씨는 난민 신분으로 임신 중인 로제타씨를 위해 3개월간 직접 병원을 동행하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현재 로제타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13년째 긴급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민간 주도의 보완적 복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산골마을 찾은 ‘해양환경 이동교실’ 아이들이 달라졌다

커다란 차 안에서 초등학생 여럿이 우르르 쏟아져 내린다. 소감을 묻자 학생들은 연신 “재미있었다”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 가족들에게도 알려 줄 것”이라며 앞다투어 목소리를 냈다. 해양환경공단이 내륙·도서·벽지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식 해양환경교실 ‘파랑해(Far랑海)’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해양환경 이동교실’ 수업 [사진 해양환경공단]

파랑해 사업은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은 물론 해양 환경 관련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등에 해양 환경 교육을 방문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서·벽지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또는 학생 수 60명 미만의 ‘작은학교’에 이동교실 차량과 전문 교사가 방문해 강의는 물론 다양한 게임·놀이·체험 중심의 해양환경 교육을 제공한다.

해양쓰레기·해양기후변화 등 해양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해양환경 보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나 어류의 목에 박힌다는 점, 폐어구가 마구 버려지면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영킨 채 죽어간다는 사실 등을 영상·사진·게임 등을 통해 배우는 식이다.

지난해는 총 119회의 교육이 1600명

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62회(822명)가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46회(597명)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열렸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찾을 때 거리상·안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동식 해양환경교실의 유아동 대상 체험 활동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아태지역 저출산 대응부터 아동 지원까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여정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 사실상 출산 기피에 가까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난임, 육아 부담, 직장 내 차별 등 수많은 장벽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는 저출산 대응을 기업의 핵심 사회공헌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난임 치료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출산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별 맞춤형 정책 제안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023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페릴리티카운츠(Fertility Counts)’를 시작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이 참여한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각국의 난임 진단·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별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과 정책 결정자를 연결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난임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캠페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 등을 진행 중이다.

한국머크바이오파마는 한국의 초저출산 상황에 맞춰 이니셔티브 활동을



지난해 6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한국머크 라이프사이언스 견학 프로그램에는 임직원 6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사진 한국머크]

국내 전략에 빠르게 반영했다. 지난해 글로벌 본부에서 마련한 ‘가임 지원 프로그램(Fertility Benefit Program)’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결혼 여부나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난임 치료와 관련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독일 본사를 비롯해 영국·스위스 등 유럽 8개국에서 먼저 시행됐고, 지난해 한국에 도입됐다.

머크는 출산 이후 아동의 성장과 권리 보장을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아동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누리마루 캠페인은 한국머크와 초록우산이 2021년부터 함께 진행하는 아동 교육, 생계 지원 사업이다. 이 캠페인은 아동

의 교육권과 건강권 보호, 정서적 안정 지원, 생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기획됐다.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와 더불어 자원봉사와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IT 기반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머크관계자는 “출산의 출발선부터 아동의 성장까지 이어지는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기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 내부적으로 여성 리더 비율 확대, 탄력 근무제 운영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은 ‘새로운 발견을 통한 인류발전’이라는 비전 안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

“30년 기부하고 20년 봉사했어요”

일상의 기부자들 최병길씨 인터뷰

초등학교 교사로 27년을 일했다. 매일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즐거웠다. 그런데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났다. 삶이 무너질 것 같던 그때 최병길(71)씨는 누군가를 돕는 삶을 선택했다. 최씨는 1992년 월드비전 후원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매주 화요일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본부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해외에서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를 분류하고, 후원자 안내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질 순을 넘긴 나이지만 정기 봉사를 권 적이 없다.

기부로 30년, 봉사로 20년을 보낸 최병길씨를 지난달 19일 만났다. 그는 스스로를 ‘덤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갑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나눔을 이어갈 뿐이죠.”

-1992년이면 기부가 낯설던 시절인데요.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방학이면 보육원 봉사도 다녔고요. 당시엔 기부 문화가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월드비전 소식지를 보고 ‘이건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왜 남을 돕느냐’며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부는 부자들 혹은 일부 사람들의 문화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기부를 지속하니 주변 친구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후원을 계속한 이유는.

“가진 게 많아서 한 게 아닙니다. 밥 먹고 살 만큼은 됐고, 나누면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끼면 남고, 나누면 채워지더라고요.”

-암 투병이 삶을 바꾸는 큰 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교사 생활 27년 차에 암 진단을 받았습시다. 항암치료 받으니까 병원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기운도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지더라고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했죠.”

-투병 중에 봉사를 시작하셨다고요.

“복직은 했지만 전 같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최병길 후원자는 “투병 이후 삶은 덤”이라며 “병이 나를 비우게 했고, 나눔이 다시 채워줬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이들 앞에 서는 건 좋았지만, 마음이 자꾸 멀어졌어요. 분필 드는 일도 힘들어지면서 결국 명예퇴직하고 봉사활동을 나가셨어요. 월드비전 본부에서 사무 업무를 도왔어요. 일주일에 하루, 세 시간 정도요.”

-몸이 힘든 상황에서 봉사를 지속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제 안에 뭔가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봉사 활동을 할 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를 도우면 나도 덜 아프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기부와 봉사를 수십 년 이어오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도 느끼셨을 텐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더라고요. 늘 부족한 돈을 아껴 기부한다니 참 보기 좋아요. 예전에는 기부를 특별한 것으로 여겼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봉사 현장 분위기도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아날로그였죠. 손편지, 수기 보고서. 지금은 디지털로 더 체계적이네요. 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후원아동을 만나러 가셨다고요. “말로만 듣던 지역을 직접 본다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미안자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아이들에게 치약이나 칫솔 같은 생필품을 줬더니 버리고 가는 거예요. 평소 쓰던 물건이 아닌 거죠.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도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부금이 제대로 쓰일까 걱정하는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보니 의심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일하는 현장을 보면 알게 돼요. 투명하게, 정성껏 쓰이고 있었어요.”

-기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어땠을까요?

“훨씬 허전했을 겁니다. 남을 돕는 일이 결국 제 삶을 살게 했어요. 병을 이겨내는 데도 큰 힘이 됐고요.”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너는 잘살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릴 적 책만 보던 염세적인 아이가 이렇게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부 문화가 더 퍼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와 공감이에요.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기부와 봉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지속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능한 한 오래 기부하고 싶어요. 큰돈이 아니어도 꾸준히, 그리고 봉사도 계속하려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세요. 숨 쉬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걸 나눌 수 있다면 더없는 행복이죠.” **문일요 더버터 기자**



분쟁을 피해 난민촌에 온 아이가 난민등록 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 [사진 월드비전]

분쟁지역 아이들을 돕는 방법

전쟁 속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자원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지킬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사람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분쟁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2025 기브어나이스데이(Give a nice day)’ 캠페인을 6월 4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캠페인에는 사람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공명·아이린·윤소하·정건주·최희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쟁 속 아이들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상징인 ‘하루팔찌’를 착용하고 아이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캠페인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하루팔찌는 구호 현장의 아이들이 착용하는 난민등록 팔찌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구호 현장 속 아이들은 처한 상황에 따라 노란색·흰색·파란색 등 세 가지 색상의 난민등록 팔찌를 발급받는다. 노란 팔찌는 영양실조, 성폭력 피해, 장애 등으로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착용한다. 흰색 팔찌는 부모를 잃어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 파란 팔찌는 그 외 난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아동이 착용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의료·영양·교육·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쟁 지역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전 세계 아동 5명 중 1명은 전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당연한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참여 희망자는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 ‘사람엔터테인먼트 X Give a nice day 캠페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국제기구·NGO들 대혼란... 한국, ODA 새로운 자금처 역할해야

▶ 1면 'USAID 폐쇄 후폭풍'에서 계속

피오 스미스 유엔인구기금(UNFPA)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 국장은 “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미국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위기에 빠진 여성과 소녀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미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만 2028년까지 1200명의 산모가 예방 가능한 임신 합병증 탓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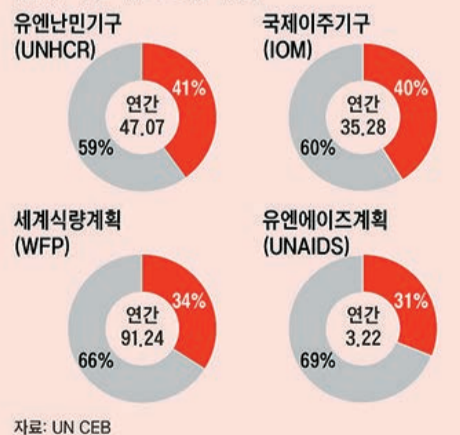
현장에서 일하는 NGO들은 자금 공백을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경주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현장 기반의 작은 NGO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한다”며 “단기 유동성이 떨어져 90일간 자금지원이 중단될 때 석 달을 버텨 낼 수 있는 준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운영 거버넌스를 조정해 미국 의존도를 낮춰 놓은 일부 조직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USAID와 협업하는 파트너 기관은 약 95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조 현황을 추적하는 글로벌에이드프리스트래커(Global Aid Freeze Tracker)가 최근 파트너 기관 568곳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타임라인 (2025년, 현지시간 기준)

1월 20일	트럼프, 해외원조 90일 중단 행정명령 발표
1월 24일	미 국무부, 해외원조 지출 동결 지침 배포
1월 27일	USAID 고위직 약 60명 강제 휴가 명령
2월 3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USAID 처장 대행 임명
2월 3일	USAID 본부 출입 통제, 직원 출근금지 통보
2월 4일	USAID 직원 대상으로 강제 휴가 통보
2월 6일	직원 1만 명에서 294명으로 축소 계획 발표
2월 21일	USAID 인도적지원 담당 직원 해고
2월 23일	직원 2000명 추가 해고,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통보
2월 26일	USAID의 기존 해외원조 계약 약 93% 해지 결정
3월 5일	연방대법원, 정부의 해외원조 자금 동결 요청 기각
3월 28일	USAID, 7월 1일까지 국무부로 통합 계획 발표

국제기구별 연간 미국 기여금 비중 (단위: 억 달러, 2023년 기준)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절반이 이번 사태로 예산의 50%가 줄었고, 약 15%의 조직이 수입의 거의 100%를 잃었다고 답했다. 자금 공백 상황을 버틸 기간을 물었을 때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4%에 달한다. 또 ‘최대 3개월’로 답한 비율은 24.8%였다. 전체 응답기관의 절반(50.2%) 이상이 5월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성호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장은 “국제본부에서 USAID 지원으로 이뤄지던 프로젝트에 대해 당사 인력을 해고하는 조치는 취

하지 말고, 사업은 일시 중단하라는 통보를 했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USAID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이 168억 달러(약 24조4000억원)로 가장 크다.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사회 지원, 제도적 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그다음으로 인도적 지원 105억 달러(약 15조2400억원), 보건 70억 달러(약 10조1600억원), 행정 35억 달러(약 5조800

억 원) 순이다. 김성호 본부장은 “분쟁취약국의 거버넌스 지원이 무너지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도적 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은행의 국제개발 지분율을 높이고, 글로벌 다자기구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자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USAID 폐쇄 이후 자국우선주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위기 앞에 당장의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지만, 각국이 자국우선주의와 원조 축소 대열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2026년부터 우리 정부의 향후 5년간 원조정책인 ‘국제개발협력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데, 올 한 해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로드맵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대표는 “현재 유럽 국가들도 연이어 ODA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ODA 예산 규모를 대폭 증액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힌다”며 “국제기구나 INGO들이 한국을 새로운 펀딩 소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공헌의 '넥스트 레벨'을 모색하다

60개 기업·재단 모인 '넥스트CSR포럼'

기업 사회공헌의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넥스트 CSR포럼'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됐다. 솔루션저널리즘 미디어 '더버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60개 기업과 기업재단 사회공헌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 주제는 'Next CSR을 위한 5가지 질문'이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들을 미리 선정하고, 전문가들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 20분씩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김기룡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김시원 중앙일보 더버터 편집장 등이 차례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토론 시간과 기업과 재단 담당자들의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

사회문제 해결, '기회의 영역'은 어디일까

첫 연사로 나선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기업이 알아야 할 한국의 사회문제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기업의 접근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공헌 사업의 주제를 정할 때 여전히 임원의 개인적 관심이나 기사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문제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 대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국의 사회문제와 사회공헌 사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은 사회공헌 사업을 국민의 관심도와 기업의 활동량에 따라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국민 관심은 높지만, 기업의 활동이 적은 분야를 '기회의 영역'으로 봤다. 그는 "노인빈곤이나 고령화 문제,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가 기회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기업들도 사회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면 사업의 성장, 사회의 지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모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고민이 가장 깊은 영역은 국민 관심도가 높고 기업 활동도 많은 영역이다. 경쟁사들이 모두 뛰어들어 기후위기, 교육 불평등 해소와 같은 주제에서는 차별성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타사와 차별성을 내려면 기업의 고유 자산과 완벽하게 연결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경쟁자 혹은 비경쟁자와 손을 잡고 판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른바 '컬렉티브 임팩트'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정말 구조가 잘 짜인 사회공헌 사업은 기업 임원의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는다"며 "사회문제와 비즈니스가 맞물릴 때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기룡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는 "임직원 자원봉사, 새로운 방식은 없을까?"라는 주제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한 때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율을 80%, 100%로 높이며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0~20% 수준으로 추락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의 고민이 깊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4 주요 기업의 사회적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 1인당 연간 봉사활동 시간은 2015년 18.6시간에서 2021년 4.0시간으로 급감했고, 2023년 4.2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김 대표는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자원봉사 일감 자체가 사회적 일자리 정적으로 줄었고, 팬데믹 이후 단체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변화한 시대 상황에서 전통적인 자원봉사 방식으로는 참여율을 높이고 활동을 확장하기 매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자원봉사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넥스트CSR포럼'에는 60개 기업·재단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재 기자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주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봉사 일감을 임직원들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봉사활동의 결과가 명확해지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김 대표는 "임직원 주도형 봉사는 과거보다 참여 인원은 적을 것이고 기업 자원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문화와 임직원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 공감 얻어야 진정한 변화 생긴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라준영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공헌 평가와 측정, 왜 어려울까?'라는 난제를 다뤘다. 라 교수는 "기업들의 고민인 전략적 사회공헌 이론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정리됐고, 경영학계에서도 새로운 이론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이론보다는 그동안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왔는지 사회공헌 전략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고민 중 하나는 측정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이다. 많은 자원을 쏟았지만, 임팩트를 측정하면 과소평가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라 교수는 "그간 전략적 사회공헌의 기본 원리에 따라 사회공헌 사업을 해왔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성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시장 기반 관점으로 사회공헌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를테면 디스플레이 업체는 눈과 관련 있으니 안과 질환을 지원한다는 식이다. 라 교수는 "이러한(業) 관련성 사업은 많은데, 기업의 자원과 전문성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기업의 역량을 발휘

하면서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생태계에도 기여하는 사회공헌 사업이 바람직한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은 '사회공헌 사업,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 편집장은 사회공헌 사업을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말(커뮤니케이션) ▶생각(전략) ▶행동(실행)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 진정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기업은 '위상'이라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실행'은 하는데 '전략'이 없는 기업은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회공헌 사업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전략'도 탄탄하고 '실행'도 잘 하는데 외부로 사업을 알리는 것에 무관심한 기업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죠."

김 편집장은 사회공헌 사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공헌 사업의 목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사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과 동감을 끌어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보도자료 배포하는 방식의 홍보로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면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부 임직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10년 목표' 설정하라

2부 토론에서는 1부 연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우리

가 만들어야 할 NEXT CSR은?'이라는 주제로 기업 사회공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김시원 편집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기업 사회공헌의 현주소와 개선점, 향후 CSR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도현명 대표는 "기업의 역량과 브랜드가 녹아 있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기업마다 한두 개씩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예산 대비 기업들의 사업 수가 너무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연간 100억원을 쓰더라도 1억씩 100개 사업으로 쪼개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크기에 맞는 큰 규모 사회공헌 사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라준영 교수는 "사회문제는 사람과 조직이 해결하는 것"이라며 기업 내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NGO·NPO와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협업 방식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룡 대표는 "사회공헌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부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가진 기술·리소스·솔루션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해당 부서들과 논의하며 함께 만드는 시도가 늘어나야 한다"면서 "반면 NPO 등 전문 기관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은 현장 조직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실적인 조언들도 이어졌다. 도현명 대표는 "국내 사회공헌 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10년 안에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식의 목표가 없다는 점"이라며 "정량화된 목표가 없기 때문에 CEO가 교체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기룡 대표는 "CSR 영역이 사회공헌 부서만의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부서가 함께 만들어가는 영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준영 교수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원리와 원칙에 충실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가장 좋다"면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은 "국내 사회공헌 사업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회공헌 담당자들과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하고자 '넥스트CSR포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더버터는 '넥스트CSR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제2회 포럼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개최된다. 문의 넥스트CSR포럼 사무국 02-3789-7863 **문일호 더버터 기자**



18일 열린 '넥스트CSR포럼'의 패널 토론에 참여한 연사들. 왼쪽부터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룡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

김용재 기자